

‘건강한 할인’... 많이 걸을수록 통신비 깎아드립니다

SK(주) C&C-SK텔레콤-AIA생명
‘T건강걷기×AIA 바이탈리티’ 출시

6개월 동안 최대 7만2000원 할인
“단순 할인 넘어 건강한 습관 유도”

SK(주) C&C와 AIA생명 및 SK텔레콤 등 3사가 소비자들이 걷기목표를 달성하면 통신요금을 할인해주는 ‘T건강걷기×AIA 바이탈리티(Vitality)’ 서비스를 출시한다.

SK텔레콤은 AIA생명, SK C&C와 ‘T건강걷기×AIA 바이탈리티’ 서비스 협약식을 가졌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앞서 SK(주) C&C는 지난해 11월 AIA생명과 ‘AIA 바이탈리티’의 한국형 모델 개발을 위한 파트너십 체결 이후 사용자 신체 특성·생활습관·건강정보 등 빅



SK텔레콤 서성원 MNO 사업부장(왼쪽부터), AIA생명 차태진 대표, SK C&C 안정욱 사업대표가 협약식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SK텔레콤

데이터 분석을 위한 플랫폼 설계·개발은 물론, 클라우드 기술을 적용해 빠르고 안정적인 모바일 서비스가 가능한 플랫폼을 개발해왔다.

이달 24일 출시 예정인 ‘T건강걷기×AIA 바이탈리티’는 SK텔레콤 고객이 바이탈리티 애플리케이션(앱)을 다운로드 후 주간 미션(주 단위 걷기목표)을 달성하면

매주 3000원, 월 최대 1만2000원씩 총 6개월간 통신요금을 할인해주는 서비스다. 통신요금할인 혜택을 원하지 않는 고객은 매주 스타벅스 커피 1잔, 뮤직메이트 400회 음악듣기, 영풍문고 4000원 상품권 중 한 가지 혜택을 선택할 수 있다.

주간 미션은 최초 주당 250포인트 이상이면 달성되며, 직전 3주간 개인의 활동량에 따라 50포인트 범위 내에서 변동된다. 일 7500보 이상 시 50포인트, 일 1만2500보 이상 시 100포인트가 부여돼 3~5일이면 미션을 달성할 수 있다. 미국 심장학회 조사에 따르면 일반 성인이 보통 하루에 걷는 걸음은 6000보 내외다. 하루 최소 미션인 7500보는 평균 도보량에서 하루 약 15분 정도를 추가로 걸으면 달성할 수 있는 수준이다.

SK텔레콤은 이 서비스의 다양한 마케팅을 맡는다. SK(주) C&C는 한국인의 생활 및 소비 패턴을 반영한 ‘빅데이터 기반

의 개인 건강관리 플랫폼’을 개발·운영하고 AIA생명은 서비스에 대한 오너십을 갖고 프로그램 운영을 총괄할 예정이다.

3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고객들에게 단순한 할인혜택을 넘어 고객들이 스스로 건강한 생활을 습관화 하도록 유도해 삶의 질을 개선하는 등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3사는 서비스 출시 기념으로 ‘10년 통신비 지원’ 이벤트도 실시한다. 서비스 출시일로부터 8주동안 주간 미션 달성자 중 추첨을 통해 매주 1명씩 총 8명에게 10년 치 통신비에 준하는 1200만원 지급 등 다양한 경품을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SK(주) C&C는 향후 인공지능 ‘에이브릴’과 접목해 개인 특성뿐 아니라 환경적 특성을 반영한 개인 맞춤형 서비스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웨어러블 디바이스, 건강관련 O2O 서비스 연계도 추진할 계획이다. /김나인 기자 silkni@metroseoul.co.kr

‘3N’ 조용한 성적표... IP 덕에 엔씨만 ‘선방’

(지식재산권)

게임사 2분기 실적 마무리
넷마블·넥슨, 영업이익·수익성 주춤
엔씨소프트, ‘리니지M’ 호실적 견인



국내 ‘빅3’ 게임사로 ‘3N’으로 불리는 넥슨과 넷마블, 엔씨소프트가 올 2분기 주춤한 성적표를 받았다. 그나마 자사 인기 지식재산권(IP)을 활용한 모바일게임 ‘리니지M’의 인기를 등에 업은 엔씨소프트는 유일하게 2분기 호실적을 기록했다.

15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넷마블, 넥슨, 엔씨소프트 등 국내 대형 게임사들의 2분기 실적 발표가 마무리됐다. 대형 게임 3사의 누적 매출은 지난해 상반기 2조 9625억원 보다 늘어난 3조 2865억원을 기록하며 호실적을 냈지만, 올 2분기 성적은 영업이익이 감소해 부진한 성적을 기록했다.

넥슨과 넷마블의 경우 상반기 매출 1조 원을 넘어섰지만, 수익성 면에서는 주춤했다. 지난 9월 2분기 실적을 발표한 넥슨은 올 2분기 영업이익 1582억원(엔화 160억엔)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2% 감소한 수치다. 넷마블 또한 영업이익이 622억원을 기록해 지난해 대비 40.8% 감소했다.

반면, 지난 14일 실적을 발표한 엔씨소프트는 올 2분기 매출 4365억원, 영업이익 1595억원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매출은 68%, 영업이익은 무려 325% 증가한 수치다. 이 같은 실적을 이끈 핵심동력은 ‘리니지M’이다. 리니지M 등 모바일게임이 전체 매출의 48%를 차지했다. 엔씨소프트가 밝힌 제품별 매출 비중은 모바일 게임 2099억원, 리니지 421억원, 리니지 2 133억원, 아이온 156억원, 블레이드&소울 306억원, 길드워2 199억원이다. 모바일 게임 별 매출액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대부분이 리니지M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리니지M은 지난해 6월 출시해 첫날부터 이용자 210만명, 매출 107억원을 기록했고, 대만 진출 이후 현지 애플 앱스토어와 구글플레이스토어에서도 최고 매출 1위를 기록했다.

초반 업계에서는 엔씨소프트가 모바일 게임 경험이 부족하고, PC 리니지의 이용

자가 모바일로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지만, 1년여 기간이 지나도록 회사의 매출을 끌어오고 꾸준히 유입되는 이용자가 많아 장기 흥행도 무리가 없다고 보고 있다.

윤재수 엔씨소프트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현재 리니지M의 해외 버전 개발을 진행 중”이라며 “3분기에는 리니지M 대규모 업데이트가 있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넥슨과 넷마블 또한 하반기 신작 게임을 공개하고 기존 인기 게임을 업데이트해 분위기 반전에 나서자는 계획이다.

넥슨은 ‘던전앤애파이터’, ‘메이플스토리’ 등 스테디셀러들의 지속적인 성장세를 업고 올해 이후 ‘메이플스토리2’를 서구권 시장에 출시하고, ‘오버히트’의 글로벌 서비스, ‘진·삼국무쌍: 언리쉬드’의 일본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다.

넷마블 또한 ‘일곱 개의 대죄’, ‘요괴워치’ 등을 올해 일본 시장에 선보일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기대작으로 손꼽히는 ‘블레이드&소울 레볼루션’은 추가적인 콘텐츠를 개발 중으로 빠른 시일 내에 출시할 예정이며 모바일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세븐나이츠2’, 모바일 어드벤처 RPG ‘팬텀게이트’도 연내 출시할 예정이다. /김나인 기자 silkni@

삼성전자-하만 카돈 첫 협업 사운드바 출시



삼성전자는 명품 오디오 브랜드 하만 카돈이 협력해 만든 사운드바가 처음 출시된다고 15일 밝혔다.

삼성-하만 카돈 브랜드로 처음 선보이는 플래그십 사운드바 HW-N950(사진)은 ‘돌비 애트모스’ 기술을 탑재했다. 네 개의 스피커만으로 일반 가정 환경에서 즐길 수 있는 최대 채널인 7.1.4음향을 구현하는 것이 특징이다.

여기서 7.1이란 기존 서라운드 스피커(프론트, 센터, 서라운드)수다. 가운데 1은 리시버에 연결할 수 있는 파워 서브우퍼의 수이고 마지막 4는 돌비 애트모스 지원 모듈에서 천장 또는 위로 향하는 스피커 수

를 나타낸다. 돌비 애트모스는 돌비의 최신 음향 기술로 머리 위 공간을 포함한 3차원 공간에 소리를 움직임에 따라 정확히 배치해 실제와 같은 사운드로 생각하고 강렬한 엔터테인먼트 경험을 제공한다. HW-N950은 8월말 한국과 미국 시장을 시작으로 유럽, 호주, 동남아, 중남미 등 전 세계 30여개국에서 판매될 예정이며 출고가 기준 가격은 180만원이다. /안병도 기자

우체국알뜰폰, 위탁판매업체 13곳 재선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우체국알뜰폰 위탁판매업체로 13개 업체를 재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우정사업본부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위탁판매업체 선정 공고를 통해 접수된 15개 업체를 대상으로 업체의 재무상태(15점), 서비스 제공 능력(65점), 고객불만 처리능력(20점) 등

을 평가(정량평가 90점, 정성평가 10점)하여 신규업체 4개사를 포함한 13개 업체를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업체는 머천드코리아, 서경방송, 세종텔레콤, 스마텔, 아이즈비전, 에넥스텔레콤, 와이엘랜드, 위너스텔, 유니컴즈, 인스코비, 제주방송, 큰사랑, 한국케이비텔레콤이다. /김나인 기자

휴대성 높은 AI 스피커 ‘기가지니 버디’

KT 9만9000원·1인족 등 겨냥
생활편의·리모콘 기능 등 적용



KT는 16일 나만의 인공지능 스피커 ‘기가지니 버디’를 출시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집안 어디서나 이용 가능한 기가지니 버디 모습. /KT

KT는 16일 나만의 인공지능 스피커 ‘기가지니 버디’를 출시한다고 15일 밝혔다.

기가지니 버디는 집안 어디서나 편리하게 사용할 있는 인공지능(AI) 스피커다. 하만카돈 스피커와 KT의 음성인식 기술로 품질을 높였고 합리적 가격에 구입 가능하다. 나만의 인공지능 스피커를 갖고 싶은 1인 가구나 주부, 학생 등에게 유용하다.

한 손에 잡히는 가볍고 콤팩트한 사이즈(너비 85mm×높이 65.5mm×무게250g)로 이동성을 높였다. 4개의 마이크를 탑재해 360도 어떤 각도에서도 쉽고 정확한

기가지니 버디는 대화와 음악, 정보 등 기가지니의 AI 서비스가 기본이다. 여기에 팟캐스트 등의 미디어 서비스, 요리레시피 등의 생활편의 서비스와 올레 tv와 연동시 채널, 볼륨제어 등 리모콘 기능도 제공된다.

기가지니 버디는 KT액세서리샵 및 G마켓, 옥션, 롯데닷컴, 쿠팡 등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한다. 선착순으로 10만원 상당의 지니뮤직 1년 이용권과 판매 가격을 1만원 할인하는 출시기념 이벤트를 진행한다. 단말 가격은 9만9000원이며, 통신사에 관계 없이 구매 후 와이파이에서 연결하면 사용 가능하다. /안병도 기자 catchrod@

제55차 초보자를 위한 부동산 경매교육

~~400,000원~~ → **60,000원 (85% 할인)**

- (평일반) 2018년 8월 22일~9월 13일
매주 수, 목요일 오후 7시30분~9시30분 / 총8강
- (주말반) 2018년 8월 25일~9월 15일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30분~오후 4시30분 / 총8강
- 현장교육 (별도옵션) : ~~300,000~~ → 130,000원
9월 2일(일), 9월 9일(일), 9월 11일(화)

김태영

※사전 수강 신청 필수 - 홈페이지 참조
www.leadersauction.com

교육문의 02) 521-9111 (강남역 5번출구)